

# 중국 보건의료 현황

이민주 연구원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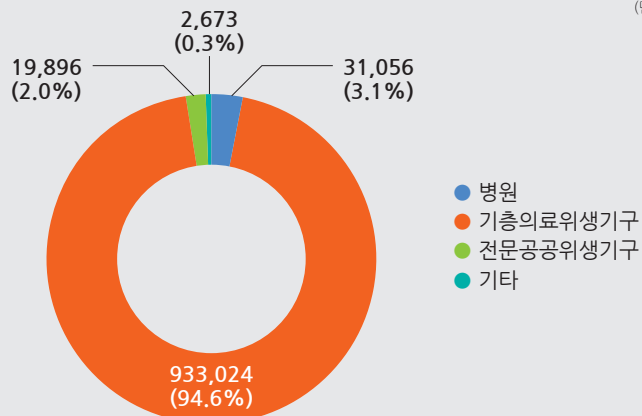
중국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중산층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시장을 8조 위안(한화 약 1,28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의료기관의 중국 시장진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비해 의료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sup>1)</sup> 본 Brief는 2018년 6월 12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에서 발표한 《중국위생건강사업발전통계공보(我国卫生健康事业发展统计公报)》의 내용을 토대로 중국 보건의료 현황을 정리했다.

## ☑ 중국 보건의료 기관(医疗卫生机构) 수

- 2017년 말 중국 보건의료 기관의 수는 986,649개로 전년대비 3,255개 증가함
  - 병원 31,056개<sup>2)</sup>, 기층의료위생기관(基层医疗卫生机构)<sup>3)</sup> 933,024개, 전문공공위생기관(专业公共卫生机构)<sup>4)</sup> 19,896개, 기타기관 2,673개임
  - 전년대비 병원은 1,916개, 기층의료위생기관은 6,506개 증가하였으며, 전문공공위생기관과 기타기관은 각각 4,970개, 187개 감소함

[그림1] 중국 보건의료 기관 수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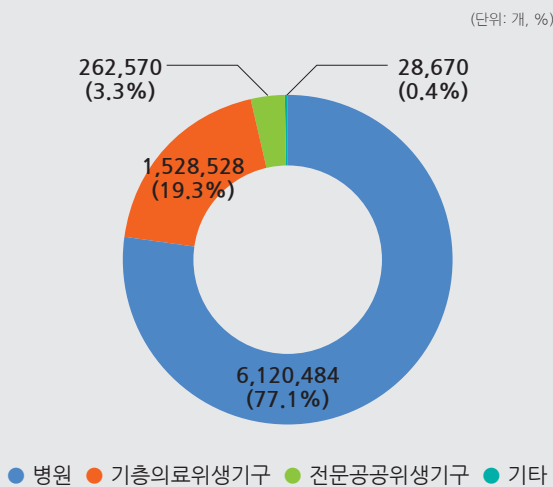


1) 출처 : KOTRA 해외시장 뉴스  
 2) 공립병원이 12,297개, 민영병원이 18,759개이며, 등급별로는 3급 병원 2,340개, 2급 병원 8,422개, 1급 병원 10,050개, 미등급 병원이 10,244개로 집계되었음  
 3) 기층의료위생기관에는 사회위생서비스센터(社区卫生服务中心), 향진위생원(乡镇卫生院), 진료소와 위생실(诊所和医务室) 등이 포함됨  
 4) 전문공공위생기관에는 질병예방통제센터(疾病预防控制中心), 위생산아계획감독기관(卫生计生监督机构)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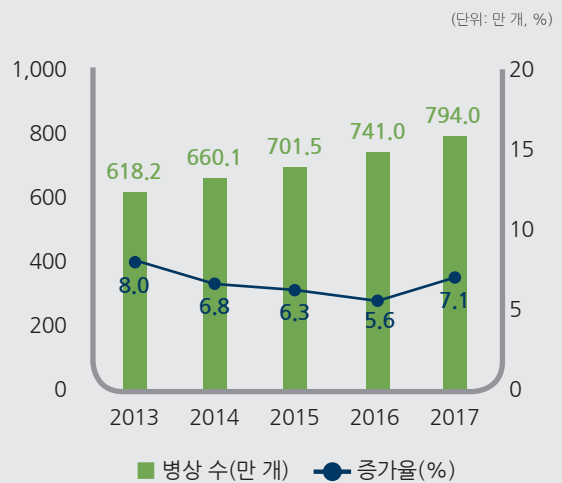
### 중국 보건 의료 기관의 병상 수

- 2017년 말 중국 보건 의료 기관들의 병상 수는 총 7,940,252개로, 2016년에 비해 529,799개 증가함
  - 병원의 병상 수가 6,120,484개(77.1%), 기층의료위생기관 1,528,528개(19.3%), 전문공공위생기관 262,570개(3.3%), 기타기관 28,670개(0.4%)로 집계됨
  - 전년 대비 병원, 기층의료위생기관, 전문공공위생기관의 병상 수는 각각 431,609개, 86,588개, 15,342개 증가하였으며, 기타기관은 3,740개 감소함
- 인구 1,000명 당, 보건 의료 기관의 병상 수는 2016년 5.37개에서 2017년 5.72개로 증가함

[그림2] 중국 보건 의료 기관의 병상 수



[그림3] 중국 보건 의료 기관의 병상 수 증가 추세



- 중국 보건 의료 기관의 병상 수는 2013년 약 618.2만 개에서 2017년 약 794만 개로 증가함

### 중국 보건 의료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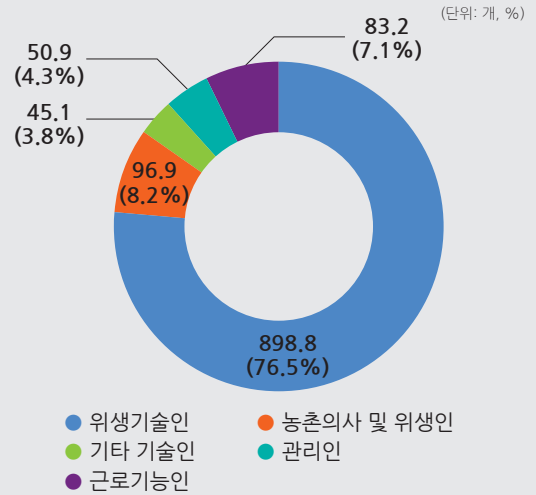
- 2017년 말 중국 보건 의료 인력은 약 1,17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7.6만 명(5.2%) 증가함
- 중국 보건 의료 인력의 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병원이 697.7만 명(59.4%), 기층의료위생기관이 382.6만 명(32.6%), 전문공공위생기관과 기타기관에 각각 87.2만 명(7.4%), 7.4만 명(0.6%)으로 집계되었음
  - 병원은 공립병원이 554.9만 명(79.5%), 민영병원이 142.8만 명(20.5%)로 집계됨
- 위생 기술인들의 학력 비중은 대졸 이상이 34.0%, 전문대학이 39.1%, 전문학교와 고졸 이하가 각각 25.1%, 1.8%였음

[표1] 중국 보건의료 인력 현황 비교 (2016 ~ 2017)

(단위: 만 명)

구분	2016	2017
위생기술인	845.4	898.8
- 보조의사	319.1	339.0
- 의사	265.1	282.9
- 간호사	350.7	380.4
- 약사	43.9	45.3
- 기사	45.3	48.1
농촌의사 및 위생인	100.0	96.9
기타 기술인	42.6	45.1
관리인	48.3	50.9
근로기능인	80.9	83.2
<b>총 합계</b>	<b>1,117.3</b>	<b>1,174.9</b>
▷ 천 명당 보조의사 수(명)	2.31	2.44
▷ 천 명당 전문의사 수(명)	1.51	1.82
▷ 천 명당 간호사 수(명)	2.54	2.74
▷ 천 명당 공공위생인 수(명)	6.31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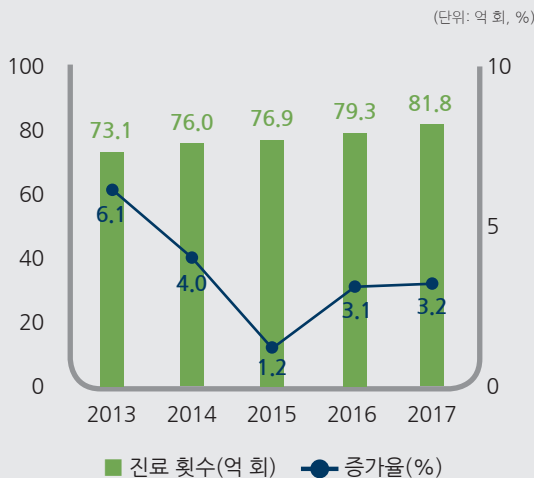
[그림4] 2017년 중국 보건의료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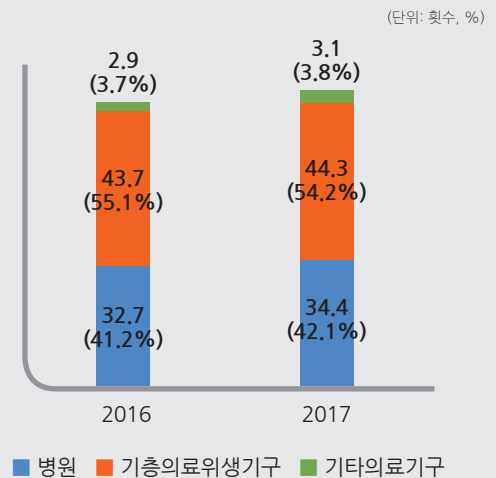
### 중국 외래진료 횟수

- 2017년 중국의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루어진 외래진료는 총 81.8억 회로, 전년대비 2.5% 회 증가(3.2%)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5.9회로 나타남
  - 병원에서 진료횟수는 전년대비 1.7억 회가 증가하여 34.4억 회(42.1%), 기층의료 위생기관(基 生 机)와 기타의료기관이 각각 0.6억 회, 0.2억 회 증가하여 44.3억 회(54.2%), 3.1억 회(3.8%)로 집계됨
  - 병원의 진료 횟수는 공립병원이 29.5억 회(85.8%), 민영병원은 4.9억 회(14.2%)였음

[그림5] 중국 진료횟수 및 증가율(2013~2017)



[그림6] 중국 기관별 진료횟수(2016 & 2017)



### 중국 입원환자 수

- 2017년 중국의 입원환자 수는 총 2억 4,436만 명으로 전년대비 1,708만 명 증가함 (7.5% 증가)
  -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는 전년대비 1,387만 명이 증가하여 1억 8,915만 명(77.4%), 기층의료위생기관과 기타의료기관이 각각 285만 명, 36만 명이 증가하여 4,450만 명 (18.2%), 1,071만 명(4.4%)으로 집계됨
  - 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공립병원이 1억 5,595만 명(82.4%), 민영병원은 3,321만 명 (17.6%)이었음

### 중국 의료비

- 2017년 중국 병원의 회당 평균 외래진료비는 257위안(원화 약 41,120원), 1인당 평균 입원비는 8,890.7위안(원화 약 1,422,512원), 1일 평균 입원비는 958.8위안(원화 약 153,408원)으로 집계됨
  - 병원 중에서도 3급 병원의 의료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중국 기층의료기관의 사회위생서비스센터(社区卫生服务中心)와 향진위생원(乡镇卫生院)<sup>5)</sup>의 회당 평균 외래진료비는 각각 117위안(원화 약 18,720원), 66.5위안(원화 약 10,640원), 1인당 평균 입원비는 3,059.1위안(원화 약 489,456원), 1,717.1위안(원화 약 274,736원), 1일 평균 입원비는 322.2위안(원화 약 51,552원), 272위안(원화 약 43,520원)이었음

5) 중국 4급 행정기관인 향(乡), 진(镇)에 설립되어 있는 보건 의료 기관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해당함

[표2] 중국 보건 의료 기관별 의료비(2016 ~ 2017)

(단위: 위안)

구분	2016년			2017년		
	회당 외래진료비	1인당 입원비	1일 입원비	회당 외래진료비	1인당 입원비	1일 입원비
병원	245.5	8,604.7	914.8	257.0	8,890.7	958.8
- 공립병원	246.5	9,229.7	965.3	257.1	9,563.2	1,017.4
- 3급 병원	294.9	12,847.8	1,272.9	306.1	13,086.7	1,334.3
- 2급 병원	190.6	5,569.9	636.4	197.1	5,799.1	665.9
사회위생서비스센터	107.2	2,872.4	296.0	117.0	3,059.1	322.2
향진위생원	63.0	1,616.8	251.2	66.5	1,717.1	272.0

※ 적용 환율 : 1위안 = 160원

저자소개

이민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전화 : 031-628-0041  
e-mail : mjlee@koreabio.org

BIO ECONOMY BRIEF

발행 | 2018년 12월  
발행인 | 서정선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